

해양플랜트 서비스 신산업 도약을 위해 민·관·학·연 긴밀히 소통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인니 해양플랜트(海洋Plant) 서비스(Service)사업
수주에 성공한 기업 격려 및 산업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3월 29일(금) 세종에서 지난 3월 14일 인도네시아 해양플랜트 서비스사업 수주에 성공한 우리나라 기업 관계자 등*을 만나 격려하고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 (기업) LNG코리아, 칸플랜트, 수산인더스트리, 가스엔텍, 한국가스기술공사 /
(학교) 한국해양대학교 / (연구기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이번 간담회는 ‘인도네시아 LNG 연료공급망 구축 및 운영사업(총 4.4조 원 규모)’에서 LNG코리아, 칸플랜트 등 우리 기업 컨소시엄(Consortium)이 총 5,6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한 것을 계기로 마련되었다.

* [누사 텡가라 지역] 약 1,300억 원('24.2.23) / [술라웨시 말루쿠 지역] 약 4,300억 원('24.3.14)

해양수산부는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에서 인도네시아의 잠재적인 가능성을 미리 인지하고, 2019년도에 인도네시아 현지에 ‘한-인니 해양플랜트협력센터’를 개소하였으며, 이후 협력센터를 통해 국내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돕기 위한 정보제공과 타당성 조사 등 다양한 지원을 해 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협력센터 확대 ▲금융 등 기업 지원 ▲산업 인지도 제고 방안 등 여러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업계에서는 ▲산·학·연 협력을 바탕으로 한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태동기에서 벗어난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이 해양수산 신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지원이 중요하다.”라며,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서는 현장 의견 청취와 업·단체와의 협력 등이 필수적인 만큼 지속해서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해양정책관 해양개발과	책임자	과 장	강미숙 (044-200-5240)
		담당자	사무관	안숙현 (044-200-5664)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